

화법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

— 생태 윤리적 가치 형성을 중심으로

한정현 동국대학교

- I. 머리말
- II. 생태학과 화법 윤리 교육
- III. 화법 윤리의 범주
- IV. 화법 윤리 교육의 실천 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11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습자들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체계’의 흐름만 살펴봐도 이러한 점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이 본질과 원리, 그리고 태도를 배운 뒤 실제로 다가서는 분절적인 방식이었다면, 2007 교육과정의 모토는 텍스트 중심이었던 만큼 실제에 기반한 지식과 기능의 맥락적 적용이 강조되었다. ‘맥락’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힘을 얻으면서 태도 범주가 빠지게 된 것이다.¹ 그러나 2011 교육과정이 ‘창의 · 인성 교육과정’을 표방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태도와 가치 함양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고, 그 결과 지식과 기능, 태도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²

1 태도 범주의 삭제는 교육 철학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태도를 과연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학습의 결과 따라오는 것이 정의적 영역인 만큼 태도를 학습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의 결과였던 것이다.

2 그렇다고 ‘맥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용 체계의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위치를 달리하

‘태도’가 다시 강조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지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의 학습을 중요시하겠다는 패러다임의 반영이다. 그리고 ‘태도’의 다양한 세부 내용 중 빠질 수 없는 항목은 ‘윤리(성)’라고 하겠다. 윤리라는 개념은 학문적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국어과 수업을 교수-학습함에 있어 ‘윤리’는 ‘해당 영역을 학습하고 실천할 때 삶의 환경 속에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인 선택을 하려는 가치’ 정도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국어교육이 ‘지금 여기’와 실제성을 표방한다면 이러한 윤리적 덕목은 교육과정의 취지와 더 붙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의 윤리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어과 교육의 세부 영역에서 실질적인 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 국어 활동 영역 중 쓰기와 관련해서는 ‘쓰기 윤리’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듣기·말하기를 포함한 화법 영역의 윤리성 연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롭다.³⁾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오늘날 화법 윤리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를 생태 윤리에 기반하여 내용 범주로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특히 내용적 측면에서는 화법 윤리와 관련한 교육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고 있지만, 지식의 하위 범주에 자리하면서 그 가치는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

- 3 물론 화법 윤리는 ‘윤리’라는 명칭이 그러하듯 교육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고 교육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화법 윤리’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에서 연구 성과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화법 윤리’라는 하나의 체계로서 연구한 축적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이다.

II. 생태학과 화법 윤리 교육

1. 화법 윤리의 필요성과 개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른바 ‘쓰기 윤리’는 다른 활동 영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논의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⁴ 이것은 ‘쓰기’라는 영역의 특성상 글말 텍스트로 작성되는 만큼 일찍이 표절부터 시작하여 사실성, 진실성 여부 등의 항목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객관적인 판단이 수월한 결과물을 역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속에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윤리적 항목을 실천했는가에 대해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듣기·말하기와 이를 심화시킨 화법의 경우는 쓰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윤리성을 반추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글말 텍스트인 쓰기에 비해 입말 텍스트인 화법은 기록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지나고 나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다. 또한 쓰기가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적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적 언어활동인 데 반해 화법은 독백을 제외하면 모두가 쌍방향적이어서 화자와 청자 중 어느 한쪽에 기준을 두고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반쪽짜리 연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쓰기의 경우 남겨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반추가 가능하지만 화법은 담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지닌다. 그러다 보니 화법의 양상에서 화자와 청자의 윤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정작 이를 교수-학습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4 ‘쓰기 윤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박영민(2008), 박영민(2009 7, 1), 가은아(2009, 2010), 이혜영(2010), 강민경(2012) 등이 있다.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학습자들의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은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윤리 성과는 무관하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오늘날 화법 교육에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언어생활 속에서 학습자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 과정 없이 내용을 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매체의 홍수 속에 학습자들이 빠져 살아가는 모습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대인의사소통보다는 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보니 면대면의 화법에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는 매우 어렵다.⁶ 친구나 교사와 대화하는 속에서 채팅어와 일상어가 뒤섞여 나오는 현상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에 따라 왜곡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각종 매체와 더불어 지내면서 이들 매체를 통해 학습된 은어와 비어가 점점 더 늘어가게 되고 이러한 언어생활의 지속은 윤리적 무감각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잘 들어주는 미덕보다는 대중 앞에 얼마나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성공의 요건이 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났다. 물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보여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사회교섭능력의 실천적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저마다

5 가은아(2010: 418-421)에서는 쓰기 윤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글쓰기 매체 환경의 변화와 비윤리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쓰기 윤리 교육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6 실제로 오늘날 중·고등학교 교실의 풍경을 보면 교사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수업 종료령이 울림과 동시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면서 의미 있는 대화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학생들끼리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만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만연되면서 공생보다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윤리의식보다는 자신의 가치만을 주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화법 윤리 교육의 부재는 학습자들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때에도 이질집단과 타협하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듣기·말하기가 동시적인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중심으로 치우친 화법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윤리적인 측면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2011 교육과정 때부터 ‘듣기·말하기’로 통합한 것은 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대한 강조이다. 이것은 듣기 현상과 말하기 현상이 같은 지분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교육의 양상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부터 우리나라의 화법 교육은 청자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화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더 큰 목표를 두었다. 그러다 보니 한정현·김혜숙(2013: 207-276)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듣기에 대한 수업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말하기와 관련한 수행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레 남을 배려하는 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화법 교육에서 윤리성에 대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은 절감할 수 있으나, ‘화법 윤리 교육’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것은 윤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의 방대함 때문이고, 화법 윤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의 어려움 때문이며,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수업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전술했던 것처럼 쓰기 윤리의 경우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윤리성을 찾아갈 수 있지만, 화법의 경우 담화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화자건 청자건 의식하며 듣고 말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자의 화법 역량을 키우는 일은 매우 지난한 교수-학습의 과정인 만큼 30명이 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주당 1~2시간의 화법

수업은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화법 윤리’를, ‘화자와 청자가 담화를 형성하고 영향을 끼치는 전 과정에 걸쳐 서로가 준수해야 할 언어적이고 사고적인 가치’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이때 화자와 청자는 담화를 형성하는 주체들이며 이들의 중요도는 같다. 여기에서 담화는 단순히 짧은 대화의 주고받음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특정한 의미 전달을 전제로 하여 설정하였다. 즉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호교섭하는 속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적·내적 현상을 모두 윤리적 규범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때 외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가 오가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음성언어로서의 담화 텍스트 전반을 의미한다. 또한 내적 현상은 학습자들의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갖게 되는 태도나 가치 등 정의적인 측면을 말한다.

2. 생태 윤리와 화법 교육

화법 윤리와 생태학과의 연계성을 살피기에 앞서 화법 윤리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법 윤리는 사회적 관계성을 지향한다. 박영민(2009ㄴ: 203-204)에서도 쓰기 윤리의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밝혔지만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⁷ 쓰기 윤리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필자가 예상하는 독자나 텍스트들,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 공동체의 규범 등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화법 윤리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예상하여 상황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대면으로 이루

7 박영민(2009ㄴ)에서는 쓰기 윤리의 특성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점과 영역 특성성을 지닌다는 점, 그리고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하였다.

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계성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휴지기가 매우 짧거나 없는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화법 윤리는 즉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담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의 결과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속에 내면화되어 있던 모습이 원활한 대화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오가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건 청자건 담화 속에서 발화를 할 때마다 어떤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할까를 고민한다면 원만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윤리성을 바탕으로 인지적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 윤리는 짧은 커리큘럼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화법 윤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주로 생활하는 교실이나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학습자가 관계 맺고 있는 환경들이 화법 윤리에 영향을 끼친다. 교실 환경의 경우에도 학습자와 교사가 일방향성을 지향하는 전통적 교실의 모습인가, 아니면 교과교실의 변형 등을 통하여 상호소통을 추구하는 형태인가에 따라 화법 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대화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그 대화의 방향성이나 내용 등이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윤리적 측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화자가 되느냐, 혹은 청자가 되느냐에 따라 취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맺음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는 학습자가 화법 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화법 윤리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였을 때 이를 ‘관계성’과 ‘지속성’, 그리고 ‘환경과의 조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생태학⁸⁾의 특

8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Haeckel이 생물학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싼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문으로 시작되었으나(박육현, 1999: 20),

성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만석(2011: 15-16)은 생태 사상의 중심 입장 중 하나가 세계를 살아 있는 생명체 간의 상호 연결된 전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유기체적 전일적 자연관이라고 하였다. 즉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을 모두 유기체로 바라보고 이들과의 원만한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육현(1999: 22-24) 역시 생태주의 언어학을 상호 의존되어 있는 관계에 대한 연구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 자체를 중시하였다. 학습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사용 양상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 언어학이라는 전제 하에 열린 시스템적 사고, 과정적 사고 등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것이다. 이창덕(2003: 5-6)에서는 언어 내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언어와 외적 상황맥락과의 유기적인 관계, 언어 사용자의 환경과 인간 관계, 언어 사용자가 속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면서 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생태학적 언어교육의 입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생태학의 특성은 화법 교육에 담긴 생태 윤리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종훈(2011: 65-67)에서는 생태 윤리가 인간과 자연의 동반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생태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기에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에 대해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생물은 상호 의존성이라는 연결망 속에 한데 얽혀 있는 생태학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이러한 생태학적 인식이 우리의 일상적 인식으로 다가올 때 새로운 생태 윤리가 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생태 윤리라는 것은 학습자 개인을 둘러싼 환경 제반을 생태학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다분히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의적 측면의 특성을 말하며, 이와 함께 학습자가 주변 대인관계를 비롯한 생태적 환경 전반에 걸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심정적 차원의 의미라고 하겠다.

1970년대 이후 환경문제의 근원에 대한 논쟁이 생태학적 사유들의 분류를 가져옴에 따라 근본생태학, 사회생태학, 생태사회주의, 생태마르크스주의, 생태여성주의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이은정, 1999: 7-12).

요컨대 화법 윤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속성은 생태 윤리의 그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화자와 청자가 상호 의존하면서 환경과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담화를 이루는 화자와 청자는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인식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화법 윤리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들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또한 화법 윤리의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결국 생태 윤리가 함의하고 있는 속성은 화법 윤리와 매우 유사하는 점에서 이후 화법 윤리의 내용을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때 유용한 기저 이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III. 화법 윤리의 범주

1. 교육과정에서의 윤리성 분석

화법 윤리는 기본적으로 논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기 윤리처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⁹ 물론 화법 윤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교수-학습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응당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 기준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1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만큼 화

9 쓰기의 경우, 2011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의 내용 성취 기준에서 '(10)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라고 쓰기 윤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쓰기 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 인터넷 등에 허위 내용 및 악성 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라는 구체적인 정의와 지도의 방향성까지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58).

법 윤리의 명시적 진술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1 교육과정에서 화법 윤리의 교수-학습이 가능한 내용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화법 윤리의 구체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표 1>은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년군별 영역 성취 기준에서 윤리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선별한 것이다.

표 1. ‘듣기·말하기’ 영역에서의 윤리성 강조 내용¹⁰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
1-2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며,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2) 듣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3) 상황과 상대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인사를 나눈다. (4) 상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 (8)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3-4	일상생활이나 공식적인 듣기·말하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듣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소통한다.	(4) 말차레를 지키면서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7)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5-6	공식적인 소통 상황에서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언어예절을 갖추고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8)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이나 결과를 예상하여 신중하게 말한다. (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
중1-3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기·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듣기·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표 1>에서도 살필 수 있듯 화법 윤리(혹은 듣기·말하기 윤리)라는 용어

10 여기에서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가치 지향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즉 도덕적 가치의 척도와 관련하여 태도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부각한 영역과 내용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윤리성의 측면을 강조한 내용 성취 기준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영역 성취 기준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귀 기울여 듣고 말하라’는 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소통하라’는 점, ‘언어예절을 갖추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는 점 등에서 윤리적 측면을 찾아낼 수 있다. 내용 성취 기준에서 윤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중학교1-3학년군에서도 담화의 유형에 따른 화법 윤리와 관련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윤리성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화법 윤리와 관련한 가치 문제가 듣기·말하기의 밑바탕인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리 갖추기를 바라는 의도적 배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¹¹⁾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먼저 기존의 <국어>가 <국어I>과 <국어II>로 나누어지는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이 중 <국어I>의 내용 체계 중 화법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78).

화법	• 대화 원리의 이해	•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	-------------	-----------------	----------------

위의 영역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면 ‘대화 원리의 이해’의 경우 지식에,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의 경우 기능에,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의 경우 ‘태도’에 각각 대입이 가능하다. 이때 화법 윤리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감적 듣기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다만 화법 윤리가 태도의 범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감적 듣기’를 기능 차원에서 강조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안이다.

11 물론 교육과정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전통적 화법 교육에서부터 윤리성과 관련한 내용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만큼, 학습자들의 실제 교수-학습에 직결되는 교육과정임을 감안한다면 분석할 만한 가치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고등학교 선택과정 중 <화법과 작문> 교과이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윤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인식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어 공동체는 내용과 형식적인 차원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에서도 나름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갖는다. 기존의 담화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뿐 아니라 담화 관습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비판적 안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윤리 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인식을 고양하도록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2011: 107, 밑줄 연구자)

화법이 작문과 통합된 형태로 교과가 이루어지면서 윤리가 언급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언어 공동체와 담화 관습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대화의 나누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그것이 담화의 관습적 틀을 형성하는 속에서 윤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태학에서 강조했던 유기적인 인간 관계나 상호 의존성과 맞물려 화법 윤리와의 상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2. 화법 윤리 교육의 기본 원리

화법 윤리 교육을 실천하기에 앞서 화법 윤리를 추동하는 기본 원리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생태학에 기반을 둔 기본 원리를 설정할 수 있다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배양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이때 김윤옥(2005: 45-47)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는 듣기·말하기 교육이 학습자들의 언어생활 생태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국어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¹² 특히 생태학적 듣기·말하기 교육의 지향점을 일곱 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¹³하면서 그 방향성을 보여 줬다는 점은 화법 윤리의 원리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이도영(2006: 355-359)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 중 ‘윤리적 차원의 말하기’를 강조하였는데, 아주 기본적인 가치의 접근이지만 요즘처럼 책임지지 않는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¹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화법 윤리 교육에서 필요한 범주와 기본 원리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범주는 화법 윤리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

12 김윤옥(2005: 45-47)에서는 여태까지 말하기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생태학적 입장에서 말하기 능력은 ‘올바른 심리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과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하고, 수행하면서 상대방과 관계 개선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13 일곱 가지 지향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바람직한 언어 사회와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② 듣기·말하기의 생태를 반영한 다양한 말하기 상황의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할 것, ③ 관련 영역들의 능력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발달되도록 듣기·말하기 교육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 ④ 듣기·말하기 교육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 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 ⑥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교육을 할 것, ⑦ 듣기·말하기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화법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화법 윤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일곱 가지라는 지향점이 특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적 측면에서 다소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14 이도영(2006: 355-359)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①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말하기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 ② 사회·문화적 차원의 말하기로서,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③ 윤리적 차원의 말하기로, ‘말과 행동의 일치’, ④ 예술적(오락적) 말하기로서, ‘말하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인 내용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 원리란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이 화법 윤리 교육을 교수-학습할 때 작용하는 가장 일반화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¹⁵

표 2. 화법 윤리 교육의 범주와 원리¹⁶

& 화법 윤리 범주 &	& 화법 윤리 교육의 원리 &
진실된 화자	⇒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하여 발화 시 나타나는 진정성의 원리
적극적 청자	⇒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없이 화자의 말을 경청하는 전념의 원리
배려적 참여자	⇒ 화자와 청자가 담화 형성 시 서로를 배려하는 호혜성의 원리
관계적 참여자	⇒ 담화 참여자들과 주변 환경이 관계를 맺는 생태성의 원리

화법 윤리의 범주 설정은 기본적으로 화법의 조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즉 화법의 일반적인 조건을 화자와 청자, 내용, 그리고 상황이라고 할 때 이들을 ‘윤리’라는 가치와 결합시켜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때 화자라면 어떠한 화자이어야 하는가, 청자라면 역시 어떠한 청자여야 하는가에 주목하였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내용을 주고받을 때 참여자들은 윤리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연계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된 화자의 범주에서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하여 발화 시 나타나는 진정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화자가 말을 할 때 진정성의 기반은 무엇 보다 진실된 발화에서 나타난다. 이때의 ‘진실된 화자’라는 것에는 있는 그

15 박영민(2009: 215-217)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변형해 보았다.

16 이때, 담화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화자’와 ‘청자’라는 일반적인 대상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는 화법의 특성상 주고받음을 전제로 하여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대로를 의미하는 사실성과 과장하지 않는다는 정직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무미건조한 사실만의 나열보다는 수식어구나 미사여구를 붙이게 된다. 담화의 재미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자의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기본적인 사실에 다양한 추임새가 붙으면서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와 담화를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진정성에 기대어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 청자의 범주에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없이 화자의 말을 경청하는 전념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전념’이란 Nel Noddings의 배려이론에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로, 서현석(2007: 395)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인 감수성’이라고 정리하였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가서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저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형성된 자신만의 가치관이 잠재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부분 내적·외적 기준에 빚대어 상대방의 발화를 받아들인다. 외적인 측면은 화자의 옷차림이나 생김새, 말투, 사용하는 어휘 등이며 내적인 측면은 청자가 받는 느낌이나 인상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전념에 입각하여 듣기를 할 때에는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은 모두 판단 중지가 되어야 한다. 이른바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배려적 참여자의 범주에서 ‘화자와 청자가 담화 형성 시 서로 배려하는 호혜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때 배려적 참여자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 상호 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서현석(2007: 397-400)에서는 Lipman(2003)의 이론을

빌려 ‘배려적 사고’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¹⁷ 여기에서는 태도적 측면과 보다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배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를 일방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생각이나 화자가 청자를 배려하면서 듣겠다는 단편적인 담화 형성의 과정은 서로의 상생을 도모하는 호혜성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유형·무형의 상황들을 수시로 살피고, 청자 역시 화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다양한 언어적 형식을 통해 해 주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호혜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관계적 참여자의 범주에서 ‘담화 참여자들과 주변 환경이 관계를 맺는 생태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문경희 외(2011: 85)에서는 Noddings(1992)가 제안하고 있는 배려의 형태를 ‘자아의 배려,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동·식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배려,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라고 분석하였다. 생태 윤리에 입각해서 화법 윤리를 바라본다면 화법이 이루어지는 현상의 주체가 단순히 화자와 청자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화자와 청자, 즉 담화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이들이 대화하는 공간적 특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 친밀성이나 성향,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등 담화를 중심으로 수많은 외적 요소들이 참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담화 텍스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혹은 상황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화법 윤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7 서현석(2007: 397-400)에서 말하는 ‘배려적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고 이생각한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려적 사고의 중요한 특성으로 “① 배려적 사고는 가치 부여적 사고이다. ② 배려적 사고는 정서적 사고이다. ③ 배려적 사고는 행동적 사고이다. ④ 배려적 사고는 규범적 사고이다. ⑤ 배려적 사고는 감정이입적 사고이다.” 등을 언급하였다.

IV. 화법 윤리 교육의 실천 방안

1. 화법 윤리 교육의 일반화

위에서 제시한 화법 윤리 교육의 범주와 원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적 요소들이 필요하다. 즉 네 가지의 범주와 원리는 같은 층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고, 외부적인 요소들을 아우르는 것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실천하기에 앞서 어떠한 과정으로 교육의 모습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살핀다면 보다 가시적인 교수-학습의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법이 화자와 청자의 상호 교섭적 현상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화법 교육에 있어서 상호 교섭은 화자와 청자가 발화를 주고받으면서 담화를 형성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 전달과 수용 이상의 화학 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전은주(1999: 259-260)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어 중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는 송신자(화자)와 수신자(청자)가 각각 대칭적 위치에서 발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합된 덩어리로서 교섭이 이루어기 때문에 역동성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적 상호 교섭은 담화가 형성되는 동안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사실 내용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고, 정의적 측면에서도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는 등

18 전은주(1999: 259-260)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을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작용적 관점 $S \rightarrow R$

상호 작용적 관점 $S \rightleftharpoons R$

상호 교섭적 관점 $SR \leftrightarrow SR$

(S: 송신자, R: 수신자, SR: 송신자와 수신자) - 김영임(1998: 24)에서 재인용

긍정적인 관계 정립에 영향을 끼친다.

화자와 청자의 상호 교섭적 관계성에 대해 인식을 하였다면, 대화 주체들이 담화를 형성하면서 가져야 할 화법 윤리의 인지적, 정의적, 실제적 측면들의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법 윤리의 이론적인 교육 내용들에 해당하며, 정의적이라 함은 담화를 형성하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의 함양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은 실제 담화의 양상에서 학습자들이 가진 인지적 이론의 정의적 발현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전념이나 배려, 호혜성과 같은 화법 윤리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들이 모두 포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순차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순서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이들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 화법 윤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담화 참여자들이 어떠한 유형의 화법을 하건 주변 환경과의 유대 관계를 끊임없이 성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법 윤리의 범주와 원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온전한 화법 윤리가 교수-학습되려면 생태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곧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맺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맺음의 대상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서부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단순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한 명씩으로만 구성되는 반면,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면 SR(송신자와 수신자)의 위력은 더 커지게 된다. 화법 윤리의 실제 또한 이런 주변 환경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태적 환경의 고려는 담화를 형성하면서 화자와 청자가 인성의 확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화법 윤리 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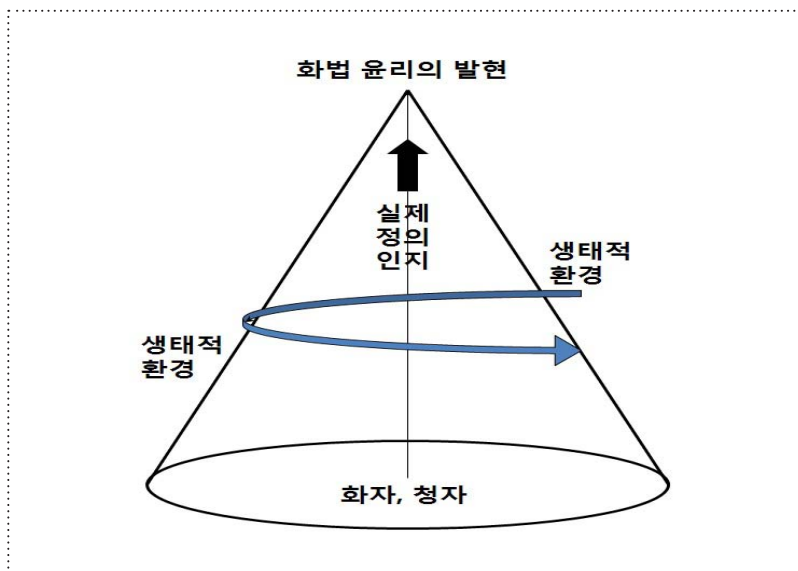


그림 1. 화법 윤리 교육의 방향성

〈그림 1〉에서 화자와 청자는 상호 교섭적 관계이고 역동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결합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관계는 화법 윤리의 인지적, 정의적, 실제적 측면들에 기반하여 담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생태적 주변 환경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화자와 청자는 이미 언급했듯 화법 윤리의 범주에 나타난 특징을 지닌다. 즉 진실된 화자와 적극적 청자, 배려적 참여자와 관계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속에서 인지, 정의, 실제적 특성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화법윤리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화법 윤리 실천을 위한 노력

첫째, 화법 윤리는 태도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화법의 다른 이론들을 학

습하는 중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즉 화법 윤리를 논의할 때 꾸준히 언급되었던 전념이나 이를 함의하고 있는 배려적 사고, 호혜적 관계성 등은 이른바 학습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학습의 목표이자 결과이며 국어적 ‘능력’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법 윤리가 막연하게나마 그 가치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데에는 화법이 가지고 있는 구두언어적 성격도 있지만, 다른 이론적 지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말하기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학습자의 성량이나 내용, 분량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항목들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해당 학습자의 말하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학급 구성원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들도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만 더욱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기형적인 수행의 축적은 화법 윤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화법 윤리가 태도적 측면임에도 학습자들이 부러 익혀야 할 능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수행을 하거나 지필 고사를 치를 때에도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꾸준히 이어질 때 학습자의 화법 윤리가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화법 윤리 형성은 단순히 국어과만의 역할로 한정할 수 없다. 물론 화법이라는 거대 담론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이론적인 영역은 국어과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적인 학습 못지않게 교실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습자와 교사 간의 실제 화법의 양상이 서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상진(2011: 199-200)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은 배려하고 배려받았던 경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배운다고 하였다.¹⁹ 따라서 화법 윤리에 대한

19 이상진(2011)은 추병완(2003)과 박병춘(1999)의 논의를 빌려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보여 줌으로써 배려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먼저 배려자가 되어야 하고, “학생들과 배려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배려 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사

전문적인 이론 수업은 국어과에서 가르치되, 모든 교과와 교사가 실제 학습자와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화법 윤리적 범주와 원리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사와 학습자의 화법 윤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려 등은 서로 동등하게 발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교사가 전문가 집단이고 화법 윤리가 가르쳐야 할 능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교사가 이를 주도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비록 교과는 다를지라도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 대화 등이 무수히 오갈 수 있는데, 이때 교사로서 학습자를 보다 더 생각하며 말하거나 듣고, 학습자들도 교사를 인정하며 듣거나 말하는 교과 수업 내의 화법 수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큰 틀에서 전 교과와 교사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화법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국어과의 전문성으로 한정되었을 때 실질적인 화법 수업의 양을 늘리고, 평가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화법을 책 속에서 이론으로 공부한다. 수행평가를 통해 화법 능력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이나 교사 개인의 역량 등의 이유로 인해 그 방법이 매우 진부하거나 양적인 측면도 다른 영역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 따라서 국어과의 다른 영역에 비해 듣기·말하기를 포함한 화법은 교과서를 제작한 해당 출판사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담화 텍스트의 제공이 필요하다. 12년간의 화법 능력을 테스트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나마 명맥을 이어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평가도 사라지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이제 화법 능력을 대본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들은 화법을 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골라내는 요령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화법 윤리 능력의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가 훌륭한 배려자의 본보기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학생들 또한 훌륭한 배려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화법들을 실제적 자료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하고, 그러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법 윤리 또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넷째,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화법 윤리의 형성이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좁은 견해를 탈피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화법 윤리를 배우고 체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중·고등학교 시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릴 때 누구보다 주위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화법 윤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 같은 틀에 박힌 소재²⁰의 말하기 등에서 벗어나 학습자들 간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담화의 주제를 함께 잡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학습자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화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실 안 국어와 교실 밖 국어가 확연히 다른 이중적 언어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를 벗어나면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섭 능력과 관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교실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화법 윤리를 배웠다면 이를 다른 곳으로 확장시켜 적용해 보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단하게는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의 전문가 집단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 보는 방식도 가능하며, 교실에서 하는 화법 수업의 일부를 학교 밖 사회와 연관시켜 보는 통합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지향해야 할 화법 윤리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 물론 자기소개를 단순히 교실 공간, 학교 공간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생태학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교의 국어과 수업에서는 자기소개를 형식적인 말하기 수행평가로 여기고 편협한 시각에서 단순히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V. 맺음말

교육과정을 환경의 변화에 맞게 상시적으로 수정하자는 방침의 근간에는 '지금 여기'라는 교육적 화두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현실적 대응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국어교육 영역은 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듣기·말하기 및 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 현실의 변화에 국어교육 또한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 중 하나는 화법 윤리가 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화법 윤리 교육이 소홀했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제도적 한계와 교실 환경의 문제 등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 집단에서 화법 윤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정작 이를 교실 내에서 실제로 교수-학습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매체의 홍수 속에서 학습자들이 급격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금, 화법 윤리 교육은 더 이상 어렵다고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학습자들이 보다 나은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세상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배려할 수 있는 국어교육이 시급한 것이다. '화법 윤리'는 '윤리'라는 특성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식의 영역은 아닐지라도 학습자들의 언어 전반을 지탱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윤리성이 결여된 화법은 자신의 이득만 취할 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가치를 포기한 것인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거시적 차원의 논의라 할지라도 화법 윤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학습자들의 국어능력 신장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14. 1. 31.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a), 『2007 국어과 교육과정』
_____ (2008b), 『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_____ (201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최종 고시본』.
가은아(2009), 「중·고등학생을 위한 쓰기 윤리 교육의 방향과 지도 방안」,
『작문연구』(한국작문학회) 제8집, pp. 231-250.
_____ (2010), 「국어교사의 쓰기 윤리의식 및 쓰기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한언어문교육』(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제22집, pp. 415-444.
강민경(2012), 「고등학생 쓰기 윤리 실태 연구」, 『국어교육연구』(국어교육학회) 제50집, pp.
1-36.
김미림(2010), 「공감화법과 개인성격의 상관성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성(2009),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려’의 개념화와 교육적 의미」,
『교육심리연구』(한국교육심리학회) 제23권, pp. 429-458.
김수동(2004), 「Noddings의 배려를 위한 대화와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교육철학회)
제32집, pp. 45-69.
_____ (2008), 「홀리스틱 교육에서 배려의 적용 가능성」,
『홀리스틱교육연구』(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제12권, pp. 1-16.
김윤옥(2005), 「생태학적 국어교육」,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학회) 31집, pp. 33-51.
문경희, 남영숙, 김기대(2011), 「나딩스의 배려이론이 초등학교 환경가치교육에서 갖는 함의」,
『교사교육연구』(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제50권, pp. 79-98.
문정애(2007), 「자기배려를 위한 교육론 탐색」, 『교육학논총』(대경교육학회) 제28권, pp. 58-
77.
박병춘(1999), 「보살핌 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미영(2009), 「배려적 화법의 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민(2009-), 「중학생의 쓰기 윤리 인식 분석」, 『작문연구』(한국작문학회) 제8집, pp. 165-
196.
_____ (2009-), 「중학생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40권, pp. 201-234.
_____ (2008),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쓰기 교수·학습 방안」, 『국어교육학
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33집, 73-102.
박옥현(1999), 「언어 갈등에 대한 생태 언어학적 소고」, 『인문과학연구』(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5호, pp. 19-36
서현석(2007),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 탐구」,
『국어교육학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28집, pp. 393-421.
신창호(2001), 「‘배려(caring)’의 동양적 의미와 교육적 함의」,

- 『한국교육학연구』(안암교육학회) 제7권, pp. 27-43.
- 오만석(2011), 「교육과정 담론의 생태학적 재구성: 시론」, 『도덕교육연구』(한국도덕교육학회) 제23권, pp. 1-30.
- 윤사순(2006), 「유학에 담긴 ‘배려철학’의 윤리적 성향」, 『오늘의 동양사상』(예문동양사상연구원), pp. 223-362.
- 이도영(2006),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25집, pp. 341-363.
- 이상진(2011), 「배려윤리와 자비윤리의 비교를 통한 도덕교육적 의의 고찰」, 『윤리철학교육』(윤리철학교육학회), pp. 171-205.
- 이성은, 장유정, 김성원(2012), 「Nel Noddings의 배려이론 관점으로 본 학급 문화 형성자로서 교사의 상징적 지도력」, 『열린교육연구』(한국열린교육학회) 제20집, pp. 1-17.
- 이은정(1999), 「교육생태학의 성립가능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2013), 「교육생태학의 교육학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훈(2011), 「생태윤리적 가치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 『윤리교육연구』(한국윤리교육학회) 제24집, pp. 63-80.
- 이창덕(2003), 「음성언어 생태와 듣기·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제22권, pp. 1-25.
- 이창덕 외 4인(2010), 『화법 교육론』, 서울: 역락.
- 이혜영(2010), 「고등학생 쓰기 윤리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주(1999), 「음성 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국어 교육학적 이해」,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호, pp. 249-282.
- 정상섭(2006), 「공감적 의사소통의 본질과 고찰」,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제72호, pp. 351-371.
- 정혜영(2010), 「배려적 화법에서의 대화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민(2012), 「나딩스 배려윤리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한계」, 『윤리철학교육』(윤리철학교육학회), pp. 1-26.
- 최미숙 외 7인(2012), 『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 (주)사회평론
- 추병완(2003), 「나딩스의 도덕교육론」, 『교육연구』(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제21집.
- 한정현, 김혜숙(2013), 「듣기·말하기 영역과 문식성 교육의 방향성 모색」,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pp. 247-283.
- Lipman, Matthew(2003), *Thinking in Education, second edition*, 박진환·김혜숙
- 윤킴(2005), 『고차원적 사고력』, 인간사랑
- Noddings, Nel(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추병완 외 윤킴(2002), 『배려교육론』, 도서출판 다른 동아리.
- Orr(1992), *Ecological Literacy —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Postmodern World* —,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화법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

— 생태 윤리적 가치 형성을 중심으로

한정현

화법 교육에서 오늘날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일이다. 다양한 매체의 유입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습자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말하기만을 우선하게 되었고, 이는 제도적 한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화법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거시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화법 윤리를 일반화하기 위해 생태학과의 연계성을 살폈다. 화법 윤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성과 즉시성, 주변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맺음과 같은 특성들이 생태 윤리와 유사함을 밝혔다. 또한 화법 윤리의 특성이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법 윤리 교육의 범주를 진실된 화자, 적극적 청자, 배려적 참여자, 관계적 참여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원리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를 통해 화법 윤리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핵심어 화법 윤리, 생태 윤리, 교육과정, 배려, 관계성, 상호교섭

ABSTRACT

A study for promoting consciousness of speech-ethics

— focused on forming the value orientation of ecological ethics

Han, Jung-hyun

One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emphasized most today in the speech education is to cultivate consciousness of speech-ethics. Due to rap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the influx of a variety of media, the learners will give priority to only individualistic speaking. It is intensifying combined with the institutional limits. In this study share the importance of speech-ethics education from this reality and try to seek a solution of the practice at the macro level.

First of all, in order to generalize the speech-ethics, studied the connection with ecology. These characteristics that social relationship, immediacy, various relation-making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n be derived from the speech-ethics founded that it is exactly like with ecological ethics. In addition, analyzed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of current in order to examine how has been reflected in the curriculum. And divided categories of speech-ethics education into details such as true listener, active speaker, caring participants, relational participants, then presented the principle. Finally, through this, way of generalization of speech-ethics education and also efforts to practice were presented.

KEYWORDS Speech-ethics, Ecological Ethics, Curriculum, Care, Relationships, Transaction